

**반기는 '봄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서쪽지방부터 비가 내리겠다.

4월 1일 (음 3월 4일)

광주	9~15℃
포항	9~14℃
여수	9~14℃
완주	9~14℃
안동	7~14℃
대구	7~14℃
대전	7~14℃
충주	7~15℃
청주	7~14℃
영천	7~15℃
울진	7~14℃
영양	9~15℃
진주	7~16℃
전남	6~16℃
영남	7~16℃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2.0~4.0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4:08 썰물 < 09:14  
여수 밀물 < 10:52 썰물 < 04:43  
21:22 23:24 16:54

기상인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날씨						
최저/최고	10/14	6/19	6/18	6/18	7/19	7/17

## 광주·전남 주말·휴일 단비

5~20mm... 건조주의보 해제될 듯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에 봄 기운을 다소 해소해줄 '단비'가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1일 오전부터 이를 동안 광주·전남에 5~2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번 비로 지난달 28일 광주·전남 지방에 발표된 건조주의보도 해제될 전망이다. 광주의 1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다소 따뜻하겠지만 초속 7~8m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1일 자정을 기해 대륙산도·흥도에 강풍 예비특보(14m/sec)를,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를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상에는 1.5~4m 물결이 높게 일고 곳에 따라 강한 돌풍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화성연쇄살인범 끝내 못잡나

10차 마지막 사건 15년 공소시효 만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살인의 추억'으로 끝나는가. 지난 86년 9월부터 91년 4월사이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km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마지막은 1991년 4월3일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권모(여·69)씨가 성폭행 당한 뒤 스타킹에 목이 감겨 숨진채 발견된 10차 사건. 마지막 사건의 15년 공소시효가 2일 만료된다. 화성사건은 ▲수사동원 경찰 연 205만명 ▲수사대상자 2만 1천280명 ▲지문대조자 4만116명 ▲모발감정자 180명 등 각종 신기록을 양산한 최대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거한 다른 사건의 범죄자 수도 1천495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90년 11월15일 태안을 범짓5리 소나무 숲에서 학교 수업 후 집으로 가던 김모(당시 13세·중1)양이 성폭행 당한 뒤 목졸려 살해당한 9차 사건은 최연소 희생자였는데다가 가장 잔인한 범행수법을 보여 영화 '살인의 추억'에 인용되기도 했다. 화성경찰청은 공소시효가 끝나 범인을 잡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꼭 범인을 찾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5명의 강력 3팀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경찰이 파악한 범인은 혈액형 B형에 키 165~170cm의 호리호리한 몸매인 20대 중반 남자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8월17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법 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일본은 2004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살인 등)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렸다. 또 독일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30년,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연방법에서는 살인 죄의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스포츠 전성시대

## 유니폼 수집 동호회 '저지 매니아'

# “스타 용품·캐릭터 없는 게 없어요”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선수들이 입고 나오는 유니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 용품 매장에는 “박지성이 입고 나오는 유니폼 주세요”를 외치는 청소년의 발길이 이어지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동호회원 3,000여명 정보교류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는 스포츠 유니폼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저지(Jersey) 매니아'가 있다. 동호회 3천100여 명의 회원들은 NBA(미 프로 농구), NFL(북아메리카 프로 미식축구리그), MLB(미 프로 야구)에 열렬한 팬이다. 광주에는 2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박현준(22·조선대 3년)씨는 브레이크 맨스 그룹 멤버로 '필라델피아 세븐시크스' '뉴욕 니스' 팀 등 NBA 유니폼 15여 벌을 가지고 있다. 체구가 작은 탓에 'S'(스몰) 사이즈를 수집하고 있는데 시중에 흔하지 않아 인터넷을 부지런히 누벼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정홍(21·전남대 2년)씨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거나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유니폼을 수집하는 것을 즐긴다. 그는 지난달 19일 WBC 한-일전 응원에 추억의 '해태' 유니폼을 입고 가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유니폼 수집가들의 동호회인 '저지 매니아'의 광주지역 멤버인 민정홍(가운데)씨와 박현준씨. 민씨는 추억의 '해태 타이거즈'를, 박씨는 프랑스 프로축구팀 '올림피크 리옹'의 공격수 리옹이 실제 입었던 유니폼을 입었다. 사진 맨 오른쪽은 유니폼과 NBA 카드를 수집하는 윤정주씨.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윤정주(23·광주시 북구 양산동)씨도 20여 벌의 유니폼을 가지고 있다. 그중 백인 일색인 미식축구 쿼터백에서 '흑인 돌풍'을 일으킨 스티브 맥네어가 올스타 전에 입었던 유니폼을 가장 아낀다.

### 박지성·조던 유니폼 인기

윤씨는 중학생 때부터 농구를 좋아해 현재 농구 전문잡지 객원 기자로도 글을 쓰는데, 3천여 장의 NBA 카드도 인터넷 등에서 수집했다. 윤씨는 “좋아하는 팀 'LA 레이커스'의 카드만 1천여 장을 가지고 있는데, 태어나기 전인 1983년에 나온 카드도 있다”고

자랑했다. 흔히 '박지성 유니폼' '베컴 유니폼'이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야들에게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희귀 유니폼이 더 인기가. 선수가 직접 입고 뛰었을 경우, 희귀성과 가격은 급등 한다.

수집가들이 '최고'로 치는 것은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볼스 시절 유니폼. 요즘 유니폼을 만들지 않는 '나이키'에서 제조한 것이면 가치는 두 배가 된다. '저지 매니아'의 한 회원은 “미국의 경매사이트 '이베이'를 통해 조던의 '프로코트'(Pro-coat·선수용) 같은 사이즈의 유니폼을 300달러에 구입했다”고 말했다.

시중에 나와있는 유니폼은 '프로코트', '어센틱'(Athletic·재질은 비슷하고 사이즈는 본인에 맞춘), '레플리카'(Replica·재질이 조금 떨어지는), '스

### NBA 카드 3,000여장 수집도

윙맨'(Swing Man·보급형) 등으로 나뉜다. 가격은 100만원이 넘는 오리지널부터 시작해 3~4만 원대 보급형까지 다양하다. 스포츠 업계에서는 “올해는 2006 월드컵이 예정돼 있어 축구 선수들의 유니폼이 인기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고객님의 전화는 복제물...사이버머니 씹니다..”

# 만우절 거짓말 문자 메시지 인터넷으로

1년에 단 하루 거짓말에 속아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만우절(萬愚節).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이 고작이었던 만우절 거짓말이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결합했다.

### 119 장난전화는 사라져

과거 소방대원들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거짓 화재신고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 장난전화를 주저, 과태료(200만원)를 물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광주시 및 전남도 소방본부에 걸려온 만우절 장난전화는 9건(광주 8·전남 1건)으로, 2004년의 70건(광주 69·전남 1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친구와 연인에게 하는 거짓말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사랑해...우리 사귀자...오늘은 만우절...이 주를 이루던 휴대전화 문자는 '고객님의

휴대전화는 복제물로 관동제 지급부터 사용이 정지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14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은 3월의 우수 회원으로 뽑히셨습니다. 주소를 말씀하시면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등으로 바뀌었다. 문자메시지를 '음성메시지 : 01 \* 89 확인 : 지우기 통화 : 음성듣기'로 보내 마치 음성메시지가 온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만우절 유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미니 홈페이지를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싸이월드'는 지난해 만우절 회원들에게 '기발한 거짓말'을 선사했다. 회원들의 홈페이지 하루 방문객 수를 4만2천542명으로 바꿔 놓은 것. 하루 평균 10여명의 방문객을 맞는 회원들이 깜짝 놀라 방문객 명단을 클릭하면, '싸이월드의 거짓말! 즐거우셨나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떴다. 네티즌들은 올해 '싸이월드'가 '도토리'(사이버머니)를 크게 충전시켜주는 거짓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우절을 맞아 다양한 거짓말 문자를 만들어 네티즌에게 제공하고 있는 '싼다넷'(www.xonda.net)의 초기화면.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휴대전화 문자 이모티콘을 제공하는 '문자천국'(www.skysms.co.kr)과 '싼다넷'(www.xonda.net) 등은 다양한 거짓말 문자를 만들어 네티즌에게 건당 20~30원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 '엔파스'가 네티즌 2천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큰일났다. 선생님이나 너 부르셔'(32%)가 가장 많이 하는 만우절 거짓말로 조사됐다. 이어 '로또 당첨됐다'(14%)와 '애인 생겼다'(11%) 등이 뒤를 이었다. 만우절에 가장 난감했던 기억으로는 '내 거짓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44%)가 1위였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전남 '비축용 김' 수매사업비

# 사상 첫 전액 반납

가공업체 “이익 없다” 거부  
올 배정 43만속 수매 못해

올해 정부 비축금 수매사업이 가공업체들의 거부로 한 속(100장)도 수매하지 못한 채 사업비가 사상 처음으로 반납됐다. 해남·진도·고흥수협 등 정부 비축금 수매사업을 추진해온 전남도내 3개 수협은 “지역 가공업체들이 정부 비축용 김을 가공하지 않아 올해 도내에 배정된 43만9천 속을 전혀 수매하지 못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비축용 김 가공이 별다른 이익이 없는데다 ▲1포대(60kg

들이)에 6만~7만 원선인 물길 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가공을 거부했다. 김 수매사업은 지난달 16일 시작돼 3월 말 끝났다. 이에 따라 해남과 진도, 고흥수협에 배정된 비축용 김 수매 사업비가 해당 산부에 전액 반납된다. 해남수협 관계자는 “해남수협이 비축용 김 수매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처음 수매사업을 추진해온 전남도내 3개 수협은 “지역 가공업체들이 정부 비축용 김을 가공하지 않아 올해 도내에 배정된 43만9천 속을 전혀 수매하지 못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비축용 김 가공이 별다른 이익이 없는데다 ▲1포대(60kg

## EBS강의 사교육비 줄였다

가구당 5만5천원...학생 73% “성적 향상”

EBS(교육방송)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의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개발에 의해 인문계 고교생과 학부모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EBS 수능강의로 인한 사교육비 감소 금액이 가구당 평균 5만5천원(15.8%)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수능강의를 활용하는 가구의 경우 34만9천원이던 월평균 사교육비가 수능강의 활용 이후 29만4천원으로 감소했다.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도 17.4%에서 수능강의 활용 이후 25.8%로 늘었다. 학부모의 55.7%는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대도시 지역 16.3% ▲읍·면 지역 36.9%였다. 소득계층별로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층 16.3%, 299만원 이하 25.5%였다. 학생들은 수능강의의 학교성적 향상 효과에 대해 73.1%가, 수능시험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84%가 인정했다. 학부모들은 77.6%가 수능강의가 수능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문계 고교생의 64.7%(대도시 62.7%, 읍·면 69.5%), 3학년의 75.6%가 수능강의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시청시간은 4.1시간으로 나타났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민주당 후원당원 가입 목포시 공무원 들 입건

목포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매달 일정액의 당비를 내는 민주당 후원당원에 가입한 혐의(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목포시청 공무원 A(30·기능 10등급)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또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입당 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정당법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B(여·45)씨 등 민주당원 2명도 입건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목포시청 공무원 9명을 정당 가입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전교조 12대 위원장 영주중 여교사 장혜옥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제12대 위원장보궐선거에서 장혜옥(여·52)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신임 장 위원장은 1977년 교사생활을 시작한 이후 1989년 해직됐으며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교육과정 개편 특별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영주중학교에 근무 중이다. 장 위원장은 1989년 전교조가 창립된 이래 12번째, 1999년 합병된 뒤로는 5번째 위원장이고 여성으로선 첫 위원장이다. 장 당선자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다. 한편 온건파인 전 이수일 집행부 노선에 비판적이었던 장 후보의 당선으로 '대화와 투쟁의 병행' 중심의 종전 전교조 정책노선에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교원평가제 실시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신임 장 위원장은 선거 공약으로 ▲교원평가 및 교원구조조정 저지 ▲교장선출비직제 실시 및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수업시수 감축 ▲고교평준화 해제와 학교학원화 저지 ▲입시개혁 및 대학평준화운동 전개 ▲사립학교법 민주적 시행령 제정과 사학민주화 투쟁 지원 등을 내걸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모친 위독” 병원비 미끼 인터넷 사기

○감정경찰은 지난달 31일 어머니의 병원비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유모(여·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0월10일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양모(63)씨에게 “모친이 위독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동정심을 유발, 5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47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썼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동정심에 호소하는 한편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돈 벌 가능성이 크다. 영입이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도 나눠 주겠다’며 양씨 등을 속였다고. /경진=이병철기자 bck@kwangju.co.kr